

더 강하게! 더 독하게!



재미와 감동의 드리블 시작됐다

6월 16일(수) 첫 방송

2021 설 특집으로 방송돼 큰 인기를 모았던 <골 때리는 그녀들>(연출: 이승훈)이 돌아온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축알못' 여성들의 미니 축구 리그로, 신선한 소재와 참가 선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리얼 축구'가 큰 재미를 주었다. 그 결과, 전체 설 특집 예능 중 화제성은 물론 가구시청률, 2049시청률 1위를 거머쥐며 일찌감치 정규 편성을 확정 지었다.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오는 <골 때리는 그녀들>은 설 특집보다 두 팀이 더 늘어나, 총 여섯 팀이 우승을 놓고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설 특집에서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 올린 'FC 불나방' 팀에는 감독들이 모두 혀를 내두른 뛰어난 운동 실력의 소유자 박선영을 비롯해, <불타는 청춘>의 신호범, 조하나, 송은영, 안혜경이 포진했다. 여기에 서정희의 딸 서동주가 젊은 피로 수혈돼 화력을 높인다.

개그우먼 신봉선, 이경실, 조혜련, 안영미, 오나미, 이성미로 구성된 'FC 개벤져스' 팀은 '운동똥' 김민경을 영입하여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던 그날의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다.

'FC 구척장신' 팀은 모델 한혜진, 이현이, 아이린, 송해나, 차수민, 김진경이 큰 키를 이용, 공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집 당시 꼴찌를 기록, 감독이 경질되는 'FC 구척장신' 팀에 어떤 감독이 부임하여 분위기를 쇄신할지 궁금증을 준다.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의 가족으로 구성된 'FC 국대패밀리' 팀은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차범근의 며느리 한채아, 이천수의 아내 심하은, 정대세의 아내 명서현, 이호의 아내 양은지,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승희가 출전한다. 이들은 연습장은 물론, 집에서도 쉼 없는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구성된 'FC 액서니스타' 팀에는 배우 이미도, 최여진, 김재화, 장진희, 정혜인, 지이수가 소속됐다. 연예계 대표 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최여진을 비롯해서 1인 5종목 운동은 기본인 배우들로 엄선한 팀으로, 이번 시즌의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베일에 싸여져 있는 마지막 팀 역시 엄청난 실력과 투지를 겸비한 팀으로 알려졌다.

감독은 기존의 황선홍, 최진철, 김병지, 이천수 외에 '독수리' 최용수, '초롱이' 이영표가 전격 합류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레전드 태극전사 6인이 한데 모여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겨루는 최초의 자리인 만큼, 선수 시절 못잖은 경쟁심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6인의 감독들이 어떤 팀을 맡아 어떤 전술과 훈련을 펼칠지 기대감을 준다. 본 경기에 앞서 진행된 감독들의 리프팅 챌린지에서는 각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쳐, 이영표 감독이 무려 500개로 1위를 차지했다.

축구에 진심인 선수들과 대한민국 레전드 태극전사 감독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축구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은 6월 16일(수)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희망 백신 접종 완료 - <희망TV SBS 우리 하나 되어 2021>



<희망TV SBS 우리 하나 되어 2021>이 지난 5월 28일(금), 29일(토) 양일간의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음원 기부'로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희망TV SBS 우리 하나 되어 2021>은 1999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했던 국민 희망가 '하나 되어'를 소환해,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1999년 '하나 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옥주현, 이상민은 물론 레드벨벳, NCT, 브레이브걸스, 인순이, 백지영, 김태우, 김재환 등 총 35팀, 56명의 가수들이 참여했다. 또한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는 '음원 기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인 멜론에서 검색 순위 1위를 유지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모금 결과는 분기별로 정산되며 음원 기부는 내년 5월까지 계속된다.

13시간 동안 이어진 뜨거운 나눔의 행렬

<희망TV SBS 우리 하나 되어 2021>이 방송된 13시간 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생방송 스튜디오를 방문해 마음을 나눴다. 1999년 '하나 되어'와 2021년 '우리 하나 되어 2021'에 참여한 가수 선, 김태우, 치타, 김요한 등이 스페셜 MC로 변신해,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전했다. 또 변정수, 강재준, 정선희, 홍석천, 김보성 등 초특급 게스트들이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응원했다. 생방송 중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희망TV> 13시간 방송과 동시에 진행된 '희망기부센터'를 통해 '물품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1박 2일간 약 11억 원 상당의 물품이 모이는 성과를 기록했다. <희망TV SBS 우리 하나 되어 2021>의 음원 수익금과 정기후원금, 기부물품들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모두 전달될 예정이다.



“세 팀 공조로 시너지 냈다”

- 보도국 한소희, 하정연, 김학휘 기자

'군 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 처우 고발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제15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보도국 한소희(사회부 네트워크팀), 하정연(사회부 시민사회팀), 김학휘(정치부 통일외교팀) 기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로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개선책 마련까지 이끌어냈다.

연속보도를 간단히 소개해 달라.

한소희: 올 1월에 취재원으로부터 공군부대 코로나 19 의심자와 접촉자들이 영하 20도의 날씨에 난방도 되지 않는 시설에 격리돼 용변은 양동이에 해결해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곧바로 보도하지 않고 4월 22일에야 보도했다.

하정연: 보도가 나가자 다른 제보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육군부대에서는 곰팡이와 바퀴벌레 가득한 시설에 격리했고, 이를 취재하려 하자 다른 멀쩡한 시설의 영상을 내보내고 그새 시설 수리에 나서서 등 황당한 대응을 했다는 보도, 또 격리시설 방역 실효성 문제나 대안 관련 보도로 이어졌다.

김학휘: 군의 사과와 감찰 착수 소식부터 시작해서 군 부실 급식 문제를 계속 보도하고 있다. 최초 보도를 SBS가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주도권을 쥐고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6월 들어서도 군의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실 급식은 여전한 상황임을 하정연 기자가 보도했고,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했다. 이번 건은 최초 제보를 받은 네트워크팀부터 사회팀, 통일외교팀의 협업이 잘 이뤄져 시너지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같은 팀 기자들이 공동으로 상을 받는 경우는 많아요, 이렇게 세 개 팀의 기자가 같이 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자기소개를 해 달라.

김학휘: 2012년에 입사하여 사회부 사건팀, 법조팀, 편집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을 거쳐 정치부 통일외교팀에서 국방부 출입을 하고 있다. 마부작침에서 데이터부터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군 부실 급식을 취재하면서도 최근 5년간의 급식비 인상을부터 들여다봤다. 이번에 군이 급식비를 25.1% 인상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데이터를 보면 최근 5년간 2~4% 인상에 그친 터라, 군에서도 이번 사안을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소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MBN에서 인턴을 했다. 홍보 마케팅 일인 줄 알고 갔는데 보도국 일이었다. 이때부터 기자를 꿈꾸기 시작했다. 2018년에 입사하여 사회부에만 있었고, 쪽 경찰에 출입하다가 올해부터 시청에 출입하고 있다. 4년 차인데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동 박수)

하정연: 2017년 서울경제신문에 들어가서 작년 12월 경력직으로 SBS에 왔다.

SBS에 오니 어떤가?

하정연: SBS에 와서 신기하고 놀라웠던 건, 데스크나 캡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팀의 주니어 기자들도 식사 등의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기사를 쓸까, 어떤 기획 기사를 만들면 의미가 있을까, 다른 기자들은 취재를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듣다 보니 저 역시 동기부여가 되고, 기사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된다.

군대는 어디로 갔다 왔나?

김학휘: 2008~2009년에 특전사 조리병으로 공관에서 복무했다. 칼질과 아육된장국은 자신 있다.(일동 웃음) 지금도 부실 급식 문제를 우리 팀에서 가장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지금 군 분위기는 토론도 많이 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끼 2,930원인 군 급식비는 고등학생들의 3,625원에 비교하면 너무나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은 인건비가 안 들고, 부식도 전체 계약이라 엄청 싼 값에 들어온다. 육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식당으로 치면 4,500원~5,000원 수준은 된다고 한다.

군대 내 상황을 핸드폰으로 찍어 제보한 것이나 조리병에게 휴일이 없다고 외부 인력 운운하는 상황은 일부에선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김학휘: 물론 핸드폰으로 군부대 안을 촬영하는 것은 내부 규정 위반이다. 그러나 군에서도 이를 공익제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보자 색출과 징계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것이다. 조리 업무에 외부 인력을 쓰는 문제는 장기

적으로 봐야 한다. 2035년에는 인구 감소로 군가용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군에서는 '국방개혁 2.0'으로 20년 뒤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병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병력은 최대한 유지해야 하니 조리 업무는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최초 제보가 연속 보도의 물꼬를 텄다.

한소희: 시청 출입기자로서 서울시 기사가 메인 뉴스에 들어가기 힘들다. 전국적인 기사에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획을 많이 하려고 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김학휘: 같은 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존경스럽다. 선을 넘긴 나이에 박사 학위를 땀다. 저 또한 아직 분야를 정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더 해서 전문 분야를 갖고 싶다.

한소희: 갑질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이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

하정연: 전 직장에서는 정치부에 주로 있었고 경제부에 잠깐 있었다. 사건팀은 이번이 처음이라, 캡이나 선배들로부터 많이 배우려고 한다. 사건팀 일을 잘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모비딕 <제시의 쇼!터뷰> 1주년



1년 채 안 돼 '1억 뷰'... 대세 콘텐츠 됐다



제시

김한진 PD

조정식 MC

SBS의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회사인 '모비딕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제시의 쇼!터뷰>가 6월 4일(금), 1주년을 맞았다.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1주년'은 꽤 의미 있는 일이다.

<제시의 쇼!터뷰>는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난다"는 모토에 걸맞게 당대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들을 인터뷰해왔다. 김영철, 권상우, 이제훈, 이상엽, 이승철, 임창정, 김구라, 서장

훈, 장성규, 홍석천, 선미, 민호, 던, 승희, 강다니엘, 타이거 JK, 박문치, 강현 등 다양한 분야의 화제의 인물들이 모비딕을 거쳐 갔다. 최근 1주년 기념 엠마 스톤과의 인터뷰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제시의 쇼!터뷰>가 대세 디지털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MC인 제시의 공이 크다. 제시는 돌직구 질문과 의외의 반전 경청 진행으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게스트

의 속내를 이끌어내며 '파격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토크쇼'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 4월 말 <제시의 쇼!터뷰>는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 초창기에 화제를 일으키며 <쇼!터뷰>를 세간에 널리 알린 '말왕편'은 단일 에피소드로 1천만 뷰를 넘어섰다. 에피소드 평균 200만 뷰라는 숫자는 <제시의 쇼!터뷰>가 현재 가장 핫한 콘텐츠 중의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다. 요즘 셀럽들 사이에서도 <제시의 쇼!터뷰>는 '출연하고 싶은 토크쇼'로 꼽히고 있다.

지난 6월 7일(월) <제시의 쇼!터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가 조정식 MC의 사회로 진행됐다. 미리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언택트로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는 SBSNOW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 나온 김한진 PD는 "우리 콘텐츠는 정통 인터뷰가 아니라 제시의 매력에 주안점을 둔 변종 인터뷰다. 솔직 담백하고 자유분방한 제시가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녹아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했다. 제시의 매력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다음 멘트가 궁금한 사람이다. 제시가 제시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본도 짧게 콘셉트만 가져간다. 제시가 토크 튀는 멘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 멘트가 궁금해서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시는 "구독자들에게 감사하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진심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제시의 쇼!터뷰>는 유튜브, 페이스북 모비딕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만나볼 수 있다.

더빙실 오디오 시스템 교체 - 테이프 기반에서 디지털로 완벽 전환

SBS A&T 제작기술팀은 목동 사옥과 일산제작센터 더빙실의 오디오 시스템을 새로운 D.A.W 시스템으로 교체하였다.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시스템은 음악 작곡 및 녹음, 편집 등의 작업을 위한 파일 기반 통합 시퀀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시스템 교체 작업은 드라마 및 제작 프로그램의 오디오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동 사옥 더빙실의 D.A.W 시스템은 AVID사의 '프로토콜스'(Protools) 소프트웨어를 채택했다. 프로토콜스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계 표준 레코딩 프로그램이다. 다량의 오디오 파일을 신속하게 편집해야 하는 드라마 등에 유리하다.

기존 시설은 테이프 기반 작업에 최적화된 장비로, 다양한 오디오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점점 더 세밀한 오디오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빠른 편집과 수정이 가능한 '프로토콜스'의 도입은 Semi-Digital에서 Full-Digital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토콜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모든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



목동 더빙실

에서, SBS도 비로소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산 더빙실에는 Avid S4 시스템이 도입됐다. Avid S4 시스템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멀티채널 믹싱이 필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기존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꼈던 음악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작 시설 전환 구축 작업에 참여한 SBS A&T 제작기



일산 더빙실

술팀 이승호 차장은 "시스템 구매 및 시설 전환 계획을 담당하는 SBS 미디어기술기획팀, 목동 공간 인테리어를 지원해 준 총무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에 구축된 목동 더빙실은 이미 많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 후반 제작에 이용되고 있으며, 5월에 구축 작업을 마친 일산제작센터 드라마 더빙실은 <펜트하우스> 시즌 3의 메인 후반 제작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산에 TV 동물농장 테마파크 들어선다 - 오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박정훈 SBS 대표이사 곽상욱 오산시장

SBS와 오산시는 '성숙한 반려문화의 저변 확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은 6월 9일(수) SBS 목동 사옥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동물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 △생명존중, 동물보호 및 복지를 기반으로 한 유기동물 예방 등 공익사업 활성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공동 수행,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TV 동물농장> 브랜드 및 캐

릭터, 콘텐츠 도입·활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오산시가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방송사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훈 SBS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어린이 보호구역!! 1(일)단 멈춤, 2(이)쪽 저쪽, 3(삼)초 동안, 4(사)고 예방"

SBS M&C 정해선 대표와 직원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포어 팻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고 잇따라 릴레이에 참여하는 가운데 켈러웨이골프 코리아 이상현 대표의 추천으로 SBS M&C도 참여하게 되었다. SBS M&C의 정해선 대표는 "SBS M&C



는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올바른 교통문화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SBS M&C 직원들과 캠페인의 뜻을 나누고 실천하겠다"라고 참여 취지를 밝혔다. 이 챌린지의 다음 주자는 코카-콜라 코리아 최수정 대표로 이어진다.

박동률 카메라기자 안식년



보도본부 사회부 네트워크기상팀 박동률 차장(성남지국)이 7월부터 안식년을 맞이한다. 박동률 기자는 1995년

입사해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을 누비며 영상취재를 해왔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그리고 강릉 공비사건 현장에도 그가 있었다. 뜨거웠던 취재의 열정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어제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은경의 스위트 뮤직박스>

러브FM(수도권103.5MHz) 월~일 오전 00:00~02:00



밤 12시는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지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는 다정한 위로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당신에게는 달콤한 설렘을, 매일 0시부터 2시까지 <박은경의 스위트 뮤직박스>가 함께합니다.

심야시간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럽게 열려서 내밀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토크하고 풀어놓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얘기를 듣기만이라도 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박은경의 스위트 뮤직박스>는 여러분께 심포를 찍어드리려고 탄생했습니다. 아니, 재탄생이 맞겠네요.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방송 시간대도, 음악 콘셉트도 달라져서 과연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조바심도 나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반갑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이리 늦게 왔냐고 환대해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20년 넘게 방송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라디오 청취자만큼 따뜻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곤 합니다.

생방송 원고는 오프닝 멘트 딱 두 장입니다. 두 시간 내내 그냥 청취자분들과 속닥입니다. 라디오야말로 청취자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닌가 합니다. 이젠 젖은 낙엽처럼 딱 들러붙어 절대 자리 비우지 않을 겁니다.

어제 하루 힘드셨나요?

"토닥토닥. 어제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아나운서팀 박은경